

# 미래 첨단산업 허브 도약 위한 투자유치 추진

### 전북자치도, 스마트테크 코리아서 홍보 부스 운영... 새만금 투자 인센티브·미래산업 경쟁력 집중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5회 스마트테크 코리아(STK) 2026'에 참가해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알리고 첨단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테크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기술 전시회로, 올해는 '산업 전 과정을 연결하는 기술 생태계'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는 MS, 구글, 애플, 삼성, 카카오 등 AI·빅데이터,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첨단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500여 개사가 참가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선보인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서 새만금과 전북을 홍보하는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과 기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5회 스마트테크 코리아(STK) 2026'에 참가해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알리고 첨단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업 맞춤형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기업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미래산업 분야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유치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현대자동차의 로봇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계획과 새만금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 첨단 농생명산업 육성 전략 등을 연계해 새만금이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과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투자보조금 지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 안내하며 기업 유치 경쟁력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여름 더위는 짹! 숙박비도 짹!

### 전북자치도,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최대 7만원 할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숙박 할인과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여름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도는 1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전북지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드라마 촬영지 투어와 지역 축제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숙박 할인 대상은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내 등록 숙박시설이다.

할인권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선착순 발급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박 상품은 14만원 이상 예약 시 7만원, 14만원 미만 예약 시 5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화제의 K-드라마 촬영지 투어

도는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근 큰 사랑을 받은 화제의 K-드라마 촬영지를 연계한 감성 여행 코스를 선보인다.

부안영성테마파크는 SF 판타지 드라마 '멋진신세계' 촬영지로,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고창군 일대는 드라마 '봉주르행집' 촬영 공간을 알려주며, 고창읍성과 청성원 등을 둘러보며 여유로

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김제 벽골제는 예능형 드라마 '시골마을 이상우 시즌1'의 배경지로, 정겨운 농촌 풍경과 넓은 지평선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다. 무주 덕유산 일원은 판타지 드라마 '보검매직컬' 촬영지로, 계곡과 숲길을 따라 걷는 웰니스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머무는 즐거움이 두 배 무주 반디플리마켓 & 여름 축제 풍성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 초반인 11일부터 14일까지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반디랜드 일원에서 열리는 '반디플리마켓'도 즐길 수 있다.

무주 반디플리마켓에서는 전통 장 킴 만들기, 반디 무드 만들기 등 공예 체험 프로그램과 산채 비빔밥, 묵밥, 아이스크림, 호두과자 등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수 반암물빛축제와 울백리 페스티벌, 김제 하소백련축제, 고창 북분자와 수박축제, 청성원 라벤더축제 등 도내 곳곳에서 여름 축제가 이어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는 관광객들에게 실속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북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숙박 할인을 활용해 드라마 촬영지와 지역 축제, 플리마켓 등을 즐기며 전북에서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백두대간 상징성·생태 건강성 동시 복원 나서

### 전북자치도,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로 개설로 단절됐던 금남호남정맥의 상징성을 되살리고, 백두대간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방도 742호선이 가로지르면서 끊어진 백두대간 능선을 다시 잇는 것이 핵심이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민족 고유의 산줄기로, 도로 개설 등으로 능선이 끊기면 야생동물의 이동이 막히고 산림 생태계의 연결성

도 약해진다. 특히 단절 구간은 생물의 서식지를 양쪽으로 갈라놓아 종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업은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 과제로, 총사업비 58억 1,000만 원(국비 40억 7,000만 원·군비 17억 4,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 등으로 훼손·단절된 백두대간과 정맥 능선을 대상으로 0.35ha 규모의 생태복원과 생태통로 1개소 설치



지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현지 자생식물을 심어 끊겼던 산림 식생을 되살리고,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막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터널형으로 조성된다.

그동안 이 사업은 구간 내 한전주와 통신주를 옮기는 지장물 이설 등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전북도와 장수군,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이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면서 지난 3월 이설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어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자, 곧바로 재착공에 들어가 현재 잡목 정리와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단절됐던 야생동물의 이동로가 확보돼 산림 생물다양성이 높아지고, 서식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민족 고유의 정맥인 백두대간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온전히 되찾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 권요안 도의원, 전북형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 구축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지난 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 구축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른 전북형 수급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수연 서기관이 '농안법 개정과 광역수급관리센터 구축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 서기관은 "생산단계부터 수급을 관리하는 선제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수급관리센터는 지역 단위 수급관리의 컨트롤타워 역

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찬걸 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북도지부 사무처장은 "광역수급관리센터는 생산자·농협·유통인·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조직으로 운영돼야 하며 생산자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교수는 "광역수급관리센터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선제적 수급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AI 기반 생산량 예측, 기후데이터 연계, 전북형 수급예측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전북도 역시 기존 생산유통역신조직과 농협의 협력을 활용해 실용성 있는 광역수급관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사무처장은 "생산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시·군 현장조직과의 연계, 청년농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출연기관 또는 유관기관 내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농협의 전문성과 기존 조직의 경험을 활용해



전북형 수급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요안 의원은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생산자와 행정, 농협,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 제12대 마지막 회기 본격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0일 오후 노후 교육 시설 개선과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제12대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기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舊) 군산내흥 초등학교 이전적지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군산진포중학교 본관동·중간동 개축 △개성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전주술내고등학교 식생활관 이전·개축 △삼례동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기숙사 신

축(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교육위원들은 개축·신축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과 시설 완공 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으며,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일 제428회 제2차 임시회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육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